

새 책

▶나무 심는 CEO(고두현 지음)=시인이자 언론인인 저자는 인재·역발상·창의·고독·혁신·소통 등 리더로서 가져야 할 덕목, 고민해야 할 가치와 비전 33가지를 자연의 소재들을 통해 이야기해보파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새로운 가치를 심고 키워야 하는 리더에게 자연이 주는 지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더숲, 1만7000원.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자신의 모습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결정된다(양승철 지음)=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비밀과 가족의 의미,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특히 살아가는 일이 무거운 과제로 느껴지는 이들은 성실함과 강한 의지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모아북스, 2만원.



▶공정함 좀 아는 10대(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공정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준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함'을 갈망하게 된 이유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공정함의 의미와 기준, 해결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와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쉽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풀빛, 1만3000원.



▶제주도를 지키는 착한 여행 이야기(노수미 지음, 이한울 그림)=은지네 가족이 제주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바로 오늘, 제주도의 현실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각 에피소드가 끝나는 곳에는 은지가 같은 반 친구 나리와 주고받는 친숙한 대화체의 카툰 메시지를 통해 제주도를 보다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각 에피소드와 관련해 어린이 독자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좀 더 깊이 제주도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썬더키즈, 1만3500원.



▶한번 배우면 평생 가는 어린이 자존감(거센 카우프만, 레브 라파엘 지음, 오수원 옮김)=내가 나의 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나에게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할 때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아동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생활에서 가져온 사례로 적절한 조언을 건넨다. 자아 개념을 잡아가는 초등 아이들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인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아주는 책이다. 현대지성, 1만3000원.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

최은숙의 '어떤 호소의 말들'

인권이 조사관이 전하는
억울한 이들의 절박한 사연

2002년부터 인권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무수한 사건을 접해온 최은숙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결과 보고서에는 차마 다 쓰기 어려운 억울한 마음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점점 늘어나 마음 한편에 수북수북 쌓였다"는 사건 너머의 이야기를 다정한 마음으로 묶어 책 '어떤 호소의 말들' (창비 펴냄)에 담았다.

저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간단한 민원도 제출하기 어려운 노인, 말이 통하지 않아 정신병원에 감금된 이주 노동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권위를 찾았지만 끝내 세상을 등진 이 등 재판 결과나 뉴스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개인의 속사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본다. 또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파스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한편 조사관 개인으로서 느끼는 한계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됐다. 1부 '어떤 호소의 말들'엔 저자가 만난 다양한 진정인의 사연이 묶였다. 2부 '고작 이만큼의 다정'엔 "때론 기가 막혔고, 때론 안타까웠고, 때론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저자가 열정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풀어놓았다.

출판사는 "저자는 억울한 이들을 줄이려면 인권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라고 말한다"며 "이 책은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절박한 사연을 소개하며 인권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고 소개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위 조사관의 일이라면 사실 너머에 있는 다양한 무늬의 진실을 헤아려보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저자. 출판사는 "그 속 사정을 헤아리며 차근차근 조사를 시작하는 어느 조사관의 마음이 집이 억울한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가닿는다"며 타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는 "저자의 모습을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독자들에게도 '인권의 마음'이 스며들 것"이라고 전했다. 1만6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2 신분집단'의 부상이 미친 영향

황경문의 '출생을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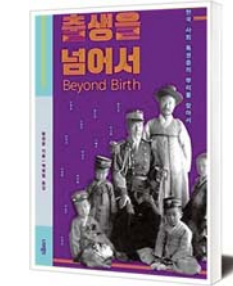
황경문 호주국립대 교수는 20세기 전환기의 '제2 신분집단'에 주목한다. 책 '출생을 넘어서' (너머북스 펴냄)에서 그는 조선 사회 유교의 교리와 양반의 지배라는 수면 밑을 조사해 제2 신분집단이 아우성치는 풍경을 드러내 보인다. 이 신분층인 (기술직)종인, 향리, 서얼, 서북인 무반에 대해 연구하고, 이 집단의 후손들이 현대 한국이라는 국가와 사회가 출현하는 데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조선시대 신분사회가 출생, 이른바 혈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제2 신분집단으로 불린 이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떠오르며 주목받았다. 저자는 "이들이 사

회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지위 구성이 출생 일변도에서 교육이나 부와 같은 보다 복잡한 요소의 혼합에 의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의 예증이다"고 했다.

책은 크게 서론 '한국 근대와 전근대의 제2 신분집단'과 7개의 장, 그리고 결론 '제2 신분집단과 한국의 근대성'으로 구성됐다.

19세기 후반부터 일제 식민시기 중반까지 새로운 엘리트 집단의 부상이 가능했던 관료 선발과 승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17세기 중반을 시작으로 근대 시기까지 이어지는 사회구조의 역사, 특히 사회 위계의 역사를 다룬다. 출판사는 "제2 신분



집단의 구성원이 관료제에서 극적 상승을 이뤄낸 다양한 수단,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운명의 반전을 확대해 수 세기에 걸친 사회 위계의 전복에 이르게 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재고하는 데 필요한지 상세히 다룬다"면서 "특히 종인, 향리, 서얼, 서북인, 무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돋보인다"는 소개를 덧붙인다. 백광열 옮김. 3만2000원.

오은지기자

지역출판 35년 분투기... 역할을 말하다

신중현의 '다시, 지역출판이다'

신중현 학이사 대표가 35년 동안 지역출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그 시간을 책 '다시, 지역출판이다'에 기록했다. 그는 출판사에 입사하던 당시의 출판 상황과 지역에서 출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바람, 지역출판사의 중요성과 역할, 지역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했던 다양한 독서운동 사례를 비롯해 기억에 남는 책과 기획에 얹힌 이야기 등을 책에 담았다.



크게 4부로 구성된 책의 1부 '지역에서 출판하기'에서 저자는 지역에서 출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바람을 풀어놓는다. '나는 대구의 출판인이다'라는 소제목을 단 글로 시작해 '다시, 출판의 도시 대구를 꿈꾸며'로 마무리한다. 2부 '지역에서 책으로 행복하기'에선 지역출판사의 소명과 역할, 다양한 활동 사례를, 3부 '잊을 수 없는 책'에선 기억에 남는 책과 기획에 얹힌 이야기를 전한다. 4부 '내 맘대로 책 소개'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의 책 소개가 실렸다.

저자는 제목을 '다시, 지역출판이다'로 정한 이유를 "지역에서 쓰고, 만들고, 읽는, 이 경이로운 일의 중심에 출판이 있다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했다. 이 책이 지역출판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탄산지식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다. 학이사, 1만4000원.

오은지기자

30년 베테랑 기자가 바라본 현대사

이광우의 '나는 진실이 궁금했다'

"해야 할 말, 기록해야 할 것들을 흘려보내려는 건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고, 마침내 부채의식으로까지 남았다. 나는 이 난감함과 부채감을 털어내고 싶었다." (프롤로그 중)



3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고 현재 인터넷신문 '뉴스아고라' 대표 겸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이광우씨가 그동안 쓴 칼럼을 다듬어 내놓은 책 '나는 진실이 궁금했다' (마음서재 펴냄)는 저자가 고백하듯 사회·문화·종교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에 관한 '그때는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됐다. 1부 '정치가 수상하다', 2부 '우리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3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4부 '문화를 생각하다', 5부 '그곳에서 만난 사연들'로 나눠 한국 현대사의 정치, 사회, 문화의 면면들을 풀어놓는다.

저자는 부산일보에서 재직하는 동안 사회부장, 등기이사, 자회사 '김해뉴스' 초대사장을 지냈다. 1만6000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 10-2078975호
특허 제 10-2182942호
특허 제 10-2196685호

시설하우스 태풍피해 대비 제품	환풍기(800W) 환풍기 가동률 통해 비닐하우스내 내압을 높여 태풍으로 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2022년 FTA 보조사업 품목	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 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 - 특허 제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	하우스지킴이 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용 알람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람기능 최대 5인까지 휴대용 알람등록 가능	2022년 FTA 보조사업 품목	공기교반기(60W, 130W) 교반기(60W투명) 교반기(130W) - 특허 제 10-2078975호 - 바람판 도출구로 인해 공기흐름 사각지대 최소화(특허) 상분리 제어기 32인 상분리 팬 제어 기능 - 자동 수동 모드 - 온도, 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기능	송풍팬(60W, 130W) 송풍팬(60W투명) 송풍팬(130W) - 파이프 체결용 고정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사용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모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모터캡 사용으로 방습,방진으로 부터 모터 2중 보호(특허) - 모터내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	--	--	--------------------------	---	--